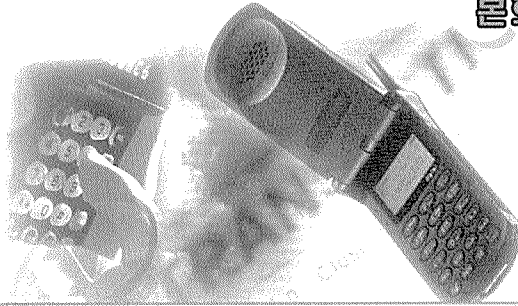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

본회 정보통신산업팀



본 조사는 전국지역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입 보조금에 대한 견해, 무선인터넷에 대한 인식, 이동전화 가입 실태 등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이동전화 가입 보조금 관련 정책 건의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숙달된 전문면접원(Trained Interview)이 Gallup의 표준조사 진행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I. 이동전화 가입보조금에 대한 견해

(70.2%), 무선인터넷 이용자(64.4%) 계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견해

- 2000년 6월 폐지된 이동전화 가입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57.5%로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1%)는 사람보다 23.4% 많아, 이동전화 가입보조금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희망자'는 전계층에서 비희망자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18~29세 : 64.3%), 고졸(60.3%), 농/임/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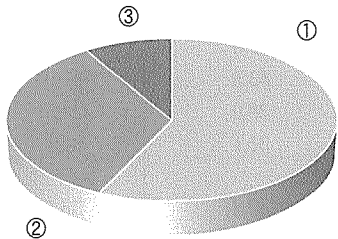
2.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가입보조금 지급 공감정도

-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전화 가입보조금이 다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자는 54.6%로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희망자와 마찬가지로 절반을 넘어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공감자는 34.2%로 공감자보다 20.4%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견해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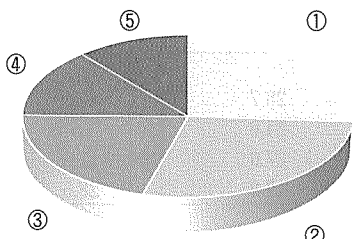


- ① 다시 지급하는 것이 좋다(57.5%)
- ②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34.1%)
- ③ 모름 / 무응답(8.5%)

구분	다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름/무응답
전체	57.5	34.1	8.5
연령별			
18 ~ 29세	64.3 ↑	29.2	6.4
30대	56.9	37.7	5.4
40대	55.3	38.0	6.8
50대	45.7	31.8	22.5
직업별			
농/임/어업	70.2	17.0	12.8
자영업	44.4	45.9	9.8
블루칼라	60.4	29.9	9.7
화이트칼라	56.0	40.7	3.3
가정주부	56.0	33.1	10.9
학생	63.6	29.5	7.0
무직	63.8	27.6	8.6
무선인터넷이용			
이용	64.4	32.2	3.4
비이용	56.2	35.3	8.5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가입보조금 지급 공감정도 -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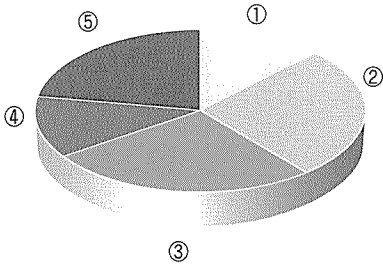
(단위 : %)



- ① 매우 공감한다(26.2%)
- ② 어느 정도 공감한다(28.4%)
-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20.8%)
-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3.4%)
- ⑤ 모름 / 무응답(11.1%)

구분	(매우+어느정도) 공감한다	(전혀+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전체	54.6	34.2	11.1
연령별			
18 ~ 29세	61.0 ↑	30.4	8.6
30대	55.6	35.8	8.6
40대	54.0	35.0	11.0
50대	38.4	39.1	22.5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2.9	32.7	24.5
고졸	56.7	33.8	9.6
대졸이상	56.3	35.3	8.4
휴대폰가입여부별			
가입	56.1	34.4	9.5
비가입	47.5	33.3	19.1
무선인터넷이용			
이용	63.7	32.2	4.1
비이용	54.5	34.9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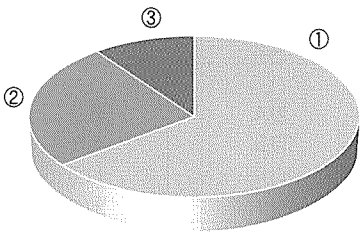
보조금 폐지후 업계의 경쟁력 약화 주장 공감정도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 ① 매우 공감한다(12.4%)
- ②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다(26.8%)
-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26.6%)
-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2.1%)
- ⑤ 모름 / 무응답(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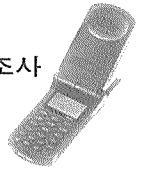
구분	(매우+어느정도) 공감한다	(전혀+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전체	39.2	38.7	22.2
연령별			
18~29세	44.0	37.9	18.1
30대	38.3	43.8	17.9
40대	37.6	38.0	24.5
50대	31.8	31.1	37.1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29.3	32.7	38.1
고졸	42.5	36.5	21.0
대제이상	38.9	43.0	18.1
휴대폰가입여부별			
가입	40.1	39.7	20.2
비가입	34.4	33.9	31.7
무선인터넷이용			
이용	53.4	38.4	8.2
비이용	37.4	40.0	22.6

달말기 보조금 지급시 선호유형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 ① 1년 정도의 의무 사용 계약 조건에 10만원에 가입하겠다(64.9%)
- ②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30만원에 가입하겠다(25.3%)
- ③ 모름 / 무응답(9.8%)

구분	1년정도의 의무 사용 계약 조건에 10만원에 가입하겠다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30만원에 가입하겠다	모름/무응답
전체	64.9	25.3	9.8
연령별			
18~29세	68.2	28.7	3.1
30대	68.4	24.0	7.7
40대	62.0	27.0	11.0
50대	54.3	17.2	28.5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1.5	27.9	30.6
고졸	67.7	25.1	7.2
대제이상	69.7	24.7	5.7
휴대폰가입여부별			
가입	66.8	24.5	8.7
비가입	55.7	29.0	15.3
무선인터넷이용			
이용	71.9	22.6	5.5
비이용	65.9	24.8	9.3



재지급 주장에 대한 공감자는 모름/무응답(22.5%)이 많은 50대층을 제외한 전계층에서 비공감자보다 많은 가운데, 남자(51.7%)보다는 여자(57.7%), 저연령층일수록(18~29세:61.0%), 고졸이상(56%대), 화이트칼라/학생(58%대), 휴대폰가입자(56.1%), 무선인터넷 이용자(63.7%)층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가격선호층은 짧은 의무기간 선호층보다 전계층에서 많은 가운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 저연령/고학력층일수록, 학생(77.5%), 휴대폰 가입자(66.8%), 무선인터넷 이용자(71.9%) 계층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II. 무선인터넷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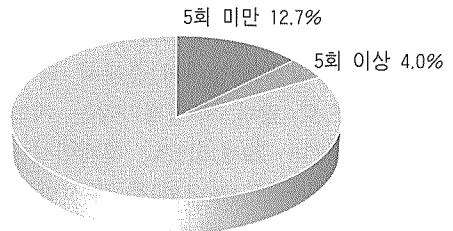
3. 보조금 폐지후 업계의 경쟁력 약화 주장 공감정도

-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폐지 이후 국내단말기 및 부품산업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자는 39.2%로 비공감자(38.7%)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보조금 폐지후 업계의 경쟁력 약화주장에 대한 공감자는 18~29세의 저연령층(44.0%), 고졸(42.5%), 학생(51.9%), 블루칼라(45.1%), 무선인터넷 이용자(53.4%)층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비공감자는 30대(43.8%), 화이트칼라(50.2%), 자영업(43.6%)층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 1주간 무선인터넷 접속 횟수/생활 유용정도

- 무선인터넷 이용자는 휴대폰 가입자의 16.7%정도로 무선인터넷 이용자중 1주간 5회 이상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5%미만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선인터넷 접속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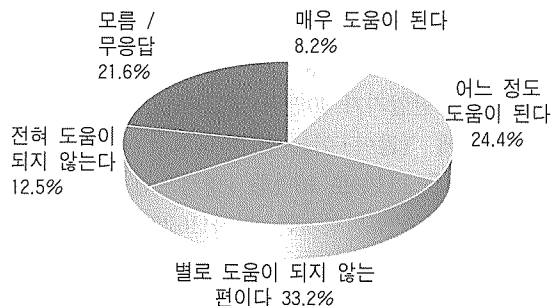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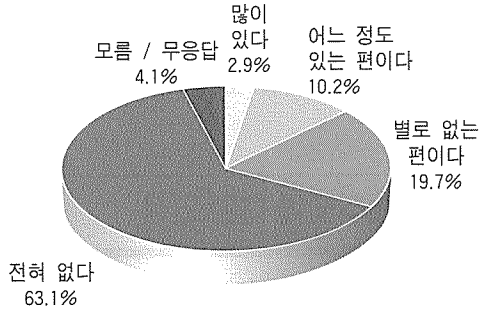
4. 단말기 보조금 지급시 선호유형

-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1년 정도의 의무사용 계약 조건에 10만원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가격선호층)이 64.9%로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30만원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짧은 의무기간 선호층-25.3%)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에 비해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선인터넷 생활 유용정도



무선인터넷 단말기 교체 · 가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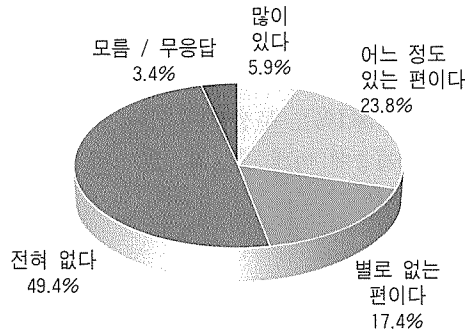


- '인터넷 쇼핑, 정보검색, 게임등을 즐기는 무선인터넷이 생활에 도움' 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매우+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평가자는 32.6%로 10명중 3명 정도이다.
- 무선인터넷의 생활유용성에 대한 긍정평가자는 50대, 휴대폰 비가입자층에서만 부정평가자보다 많은 가운데, 남자(28.8%)보다는 여자(36.6%), 가정주부/학생(35%내외)층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부정평가자는 저연령/고학력층일수록(18~29세:51.5%, 대재이상:54.5%), 학생/화이트칼라(54%내외)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2. 무선인터넷 단말기 교체 · 가입 의향/보조금 지급시 교체 · 가입의향

-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40만원 정도에 판매될 경우 1년 이내에 '(많이+어느정도) 구입할 의향' 이 있는 사람은 13.1%로 10명중 1명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의향자는 남자(16.2%), 저연령층일수록, 블루칼라(20.8%), 무선인터넷이용자(20.5%)층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보조금 지급시 교체 · 가입의향



- 무선인터넷 단말기 비구입 의향자에게 과거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단말기가 20만원 정도로 인하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비구입의향자의 29.7%가 '(많이+어느정도) 구입할 의향'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말기가격이 인하될 경우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선인터넷 단말기 구입의향자'와 마찬가지로 남자, 저연령층에서 많다.

III.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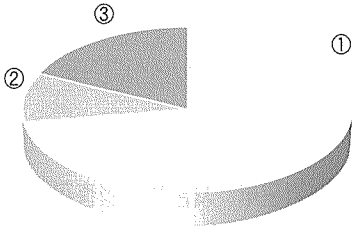
■ 국산/수입품 휴대폰 비교 평가

- 지금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의 품질과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수입품에 비해 국산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7%로 10명중 7명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품 우수평가자는 9.7%로 10%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산품 우수 평가자는 전계층에서 수입품 우수평가자보다 전계층에서 많은 가운데, 여자(70.5%)보다는 남자(74.9%), 저연령층/고학력층일수록, 학생(81.4%), 휴대폰 가입자(74.1%)층에



국산/수입품 휴대폰 비교 평가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



- ① 국산이 우수하다(72.7%)
- ② 수입품이 우수하다(9.7%)
- ③ 모름 / 무응답(17.5%)

구분	국산이 우수하다	수입품이 우수하다	모름/무응답
전체	72.7	9.7	17.5
성별			
남자	74.9	9.7	15.4
여자	70.5	9.8	19.7
연령별			
18 ~ 29세	77.2 ↑	12.0	10.9
30대	71.9	9.3	18.8
40대	71.7	8.0	20.3
50대	65.6 ↓	7.9	26.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66.7 ↓	6.8	26.5
고졸	72.0	11.5	16.6
대제 이상	75.6 ↓	8.8	15.6
휴대폰가입여부별			
가입	74.1	9.7	16.2
비가입	66.1	9.8	24.0

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IV. 여론조사 결과

본 내용의 결과를 보면, 1주일간 무선인터넷 접속 횟수가 5회 이상인 사람은 5% 미만으로 아직은 소수에 불과했는데 아직은 무선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보유비율이 낮은데다 이용요금의 문제와 콘텐츠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었으며 무선인터넷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0명중 3명(32.6%) 정도로 아직은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40만원 정도의 단말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약 13.1%로 많지 않았으나, 보조금이 지급되어 20만원 정도로 인하되면 10명중 3명(29.7%) 정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조금이 부활되면 약 2.5배로 무선인터넷단말기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품질과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산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7%로 수입품이 우수하다는 응답자(9.7%)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이번에 실시한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당국 및 사업자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